기氣와 혈血의 정체가 암의 원인이다

1. 적혈구가 암세포로 돌변한다

암에 대해 영지버섯이 좋다는 것은 널리 알려져 있으나 과연 영지버섯 속의 어떤 성분이 항암작용을 나타내는가에 대해 국내외 많은 학자들이 연구해 왔던 바, 다당체(Polysaccharide)가 T임파구(흉선임파구)를 증진시키고 암세포를 저지(Tumor-static)한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한방에서는 기와 혈의 정체가 암의 원인이라고 한다. 버섯 균사체에는 정기를 생성시키고 혈액순환을 돕는 성분이 들어있는 것이 이미 밝혀졌고 일찍이 중국의 명나라 '오서'라는 한의사는 악혈을 파하고 종양을 없앤다고 했다.

최근에 흥미있는 연구자료를 보면 일본의 모리시다 게이치 박사는 동경의대 교수(혈액전문)로서 암세포는 우리 몸의 적혈구에서 돌연변이가 됨에 따라 암세포가 되고 이 암세포화한 적혈구가 인체의 특정 부위(대개 무산소 부위)에 정착해서 그 암세포의 처소를 확보하는 것이 암의 발생순서로 보고 있다. 건강한 혈액이 암을 이긴다.

2. 영지 균사체는 진행암의 증상을 평안히 한다

(1) 삶의 질(Quailty of life)

세계 제일의 장수국이라고 말하고 있는 일본에서는 긴 노후를 어떻게 지낼까 하는 일이 커다란 과제가 되었으며,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죽고 싶을까'라는 질문에 대해서 '고통없이 죽고싶다'라고 말하게 된다. 확실히 오랫동안 병상에서 부자유한 생활을 하다가 고통스럽게 얼굴을 일그러뜨리면서 죽는 것은 본인은 물론 주위 사람들로서도 피하고 싶은 일일 것이다.

죽음이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것이라면 될 수 있는 한 안락하게 고통이 적은 죽음을 맞고 싶을 것이다. 그러한 관점에서 '삶의 질'이라는 과제가 심각하게 논의되고 있다.

이는 본인이 어떻게 살아왔는가 라는 철학적인 문제와도 틀리지 않지만 여기서는 사람이 죽음에 이르는 의료현장에서 생각해야만 하는 과제이다.

예를 들어 환자를 병실에 붙들어 놓는 일만이 좋은 의료라고 말할 수 없으며 아무리 병자라도 그 사람의 가족의 입장에서도 둘도 없는 남편이요, 부인이 되기도 하고 또는 부친이나 모친이 되는 것이다. 사람은 병원에 있을 때는 '환자'가 되지만 가정이나 사회에서는 '한 인간'이다.

(2) 부작용을 피할 수 없는 항암제(화학요법)

현재 암치료법으로 일반적으로 외과수술, 방사선치료, 화학요법 등이 있으며 그것은 무질서하게 증식하는 암세포의 세포분열 능력을 억제하거나 무력화시키는 방법이다. 항암제가 암세포만 공격한다면 좋겠으나 이것이 정상세포가 분열하고 있을 때 건강한 세포까지 피해를 주기 때문에 당연히 부작용을 피할 수 없게 된다.

이 부작용은 종류에 따라 다를 수 있으나 골수, 간장, 신장에 장애가 생기는 경우 이외에 식욕저하, 구역질, 구토, 설사, 피부에 검은 기미, 손톱의 변형, 변색, 탈모 등이 일어나는 경우도 있다. 이 부작용이 환자에게 주는 고통은 매우 크고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절망하게 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이밖에 더 무서운 것은 항암제 투여에 의해서 암세포를 죽이기도 하고 증식을 막을 수는 있어도 인간의 몸이 본래 가지고 있는 '자연치유력'을 크게 깨뜨려버리면 우리가 목적하는 암세포를 격퇴시키기 위한 길이 오히려 엉망이 될 수가 있다. 암을 없애려고 하다가 암세포뿐만 아니라 우리의 정상세포도 죽어가는 꼴이 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현재의 암 치료가 '독을 가지고 독

을 없앤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가 된다.

(3) 영지균사체로 진행암의 증상을 평안히 한다.

암은 치료하기 어려운 병이라는 인식이 있으나 현대의학의 진보에 의해서 치유율도 올라가 '암은 죽는 병이다' 라는 인식은 점차 줄어들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일본 동경 드시마구의 암연구회 부속병원 원장이며 「암 · 성인병을 위한 영지」의 저자 다무로 츠이토 박사가 일본 암환자의 10년 생존율을 발표한 바에 의하면 1980년부터 1990년까지 치료한 1,575명의 환자 중 825명이 생존하여 52.4%의 10년 생존율을 나타냈다.

암의 진행정도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암환자의 2명 중 1명이 생존해 있는 일을 생각해보면 암이라고 신고받은 후라도 그렇게까지 절망하고 인생을 포기해 버릴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 암에서의 승리를 위해서는 자기가 암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받아들여 적극적으로 치료에 임하는 것이 현명하다는 인식이 정설로 되고 있다.

그러나 암이라고 해도 초기에 발견해서 치료할 수 있는 경우와 진행한 암의 경우는 당연히 치료효과와 투병생활은 다를 수밖에 없다.

진행한 암의 경우에는 암과의 장렬한 싸움이 현대의학을 통해서 확장되고 있으나 그 결과는 만족스럽지 못하고 진행한 암의 경우 죽음을 의하는 가능성은 아직도 높다고 볼 수 있다.

이 때 될 수 있는 한, 암을 인정하고 치료하는 한편 체력의 보강, 고통의 완화를 도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런 의미에서 영지 균사체를 복용함으로써 몸의 상태를 조금이라도 좋게 하고 아픔이 적어진다면 환자에게 조금이라도 평안한 투병생활을 가능케 할 수 있다.

말기환자의 경우 혈당 이상현상도 수반되므로 영양의 대사가 잘 되지 않게 되지만 영지 균사체 추출물은 혈당 조절뿐 아니라 영양대사에 좋은 영향을 주기 때문에 한결 편하게 투병이 되며 연명효과도 높다.

이것이 앞서 말한 삶의 질을 높이고 '죽음의 교육' 을 포함한 인생의 총결산을 냉정히 받아들일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며 치료를 베푸는 측에서도, 환자의 인생에서도 무언가 최선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일본 동경 도시마구 암연구회 부속병원장 다무로 츠이토 박사의 저서 「암과 성인병에 뛰어난 영지」 참고)

영지의 항종양 임상사례

① **영지다당체 추출** - 쥐에 실험 : Sarcoma 180(고형암)에 대한 실험에서 대부분 90% 이상의 암세포 억제율을 보였다.
(일본 오사카 시립대학교 식품영양 생활과학과 교수팀(1985)

② **직장암 예방치료 효과** : 결장암, 직장암에 대해 영지 추출물이 암세포의 성장이나 전이를 억제, 암의 예방과 치료효과 기대.
(미국 텍사스 의과대 교수 스타비노하 박사, 1993년 대한약학회 주최〈영지 국제 심포지엄〉에서)

③ **암 발생 억제 및 예방** : 영지 추출물이 발암물질인 벤조피렌 투여로 유발된 실험쥐의 폐선종 발생을 억제, 항암 작용 및 예방 효과 확증, 암 예방식품 가능성 제시.
(원자력병원 암 병리학 연구실장 윤택구 박사 : 1993년 대한약학회 주최 〈영지 국제 심포지엄〉에서 발표)

④ **유방암 · 위암치료 효과 우수** : 12명의 유방암 환자와 위암 말기 환자를 대상으로 영지 추출물 투여 후 검사 결과, 더 이상의 악화나 전이가 없었음.
(러시아 국립 암연구소장 쿠핀 박사, 1993년 대한약학회 주최 〈영지 국제 심포지엄〉에서 발표)

⑤ **영지 균사체 배양 및 항암 성분 추출 분리**(한국산 영지 균사체와 그 배양 여맥으로부터 단백다당류 추출) : Sarcoma 180 종양세포의 흰쥐에서 60% 저지율.
(서울대학교 약학대학 김병각 교수팀 및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이영남 교수, 1981. 4 논문)

⑥ **백혈병에 대한 영지 균사체의 효과 임상**
대만 국립 Yang-Ming 의과대학의 Lieu 박사팀의 연구에 의하면 영지 다당체가 백혈병을 야기하는 세포(U937 Cell)의 성장을 억제하고, 이 U937 Cell이 정상적인 단핵 백혈구 세포로 분화되도록 유도하는 것을 확인했으며, 뿐만 아니라 세포형질 과산화물을 생성시키고 식균 작용을 하는 대식세포 생성에도 기여함을 1992년 항암연구지(Anticancer Research)에도 논문으로 발표한 바 있다.
또한 중국에서는 복건 삼명지구 병원과 광동 하원현 위생국에서는 백혈병 환자의 경우 백혈구 감소 유효율이 84.6%(현저하게 효과적인 것이 21%), 81.7%로 나타났으며 이때 1일 3회 10~30g을 투여한 것으로 기록하고 있다.

문의전화 02-514-4657